

후원금 줄고 회원 떠나고... '광주 YMCA' 운영난 가중

올 회원 160명 후원 해지·회비 미납 592명...4천만원 감소 총장로 상권 위축 '직격탄'...임대 공실에 월세 등 수익 급감

103년 역사...독재·유신에 맞선 광주의 상징 지역민 관심 절실

올해로 창립 103주년을 맞은 광주지역 최초의 시민사회단체인 '광주 YMCA'가 지속적인 수익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여파로 회원 후원금이 감소했고, 최근 총장로 상권의 위축으로 YMCA 소유의 임대 건물이 공실 상태로 유지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29일 광주 YMCA에 따르면 올해 후원회원은 3737명이지만 이중 160명이 중도 후원해지를 요청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592명에 달한다.

후원금 감소 예상금액은 4250만원 정도로 전체 후원금의 14%에 달하는 수치며, 후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년 후원금이 3억원을 넘겨 왔지만 올해는 2억원을 겨우 넘길 수준으로 예상된다.

광주 YMCA는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에 이바지하고, 지난 50여년 동안 스포츠클럽 운영, 청소년 및 가족 캠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힘써왔다.

하지만 코로나와 고물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약재가 겹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후원회원들의 탈퇴리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총장로 상권의 침체도 광주 YMCA에 악재가 됐다.

실제 총장로, 금남로 일대 상권 임대 상가의 공실률(28%)이 상승하고 있고 광주 YMCA가 소유한 상가인 호남약기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5곳에서도 임대 공실이 발생했다.

결국 YMCA가 임대 보증금 2억 3000만원과 월세 1420만원 등 임대 수익을 잃게 된 것이다.

또 과거에는 광주YMCA 야구단·축구단·농구단 등 사회체육활동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지역민들이 호응하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운영에 도움을 줬으나,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등 정책적인 변화와 공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센터들이 생겨남에 따라 스포츠 센터 활동도 위축되면서 수익

이 감소하게 됐다.

YMCA의 운영난은 건물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광주 YMCA 본관은 올해 장마기간 옥상, 건물 측면 벽 등 건물 전체에서 빗물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보강공사를 못하고 있다.

옥상 방수 공사에만 1억원, 건물 전체 보수공사에는 3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의 후원 모금 없이는 공사 진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특히 YMCA건물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도 현 위치를 유지해오면서 광주의 민주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내부의 의견이다.

이재웅 광주 YMCA 관장은 "그동안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을 통해 노후 건물의 기능보강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제선 그조차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 YMCA는 60년대부터 독재와 유신에 맞서 싸운 광주지역의 상징적인 거점이자,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육내집회가 자주 열려 5·18 사적지 중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운영이 어렵더라도 광주시민들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장소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yang@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징계안 가결

부상자회 회장 이어 두 번째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조만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29일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 따르면 최근 공로자회 상법위원회는 정 회장과 공로자회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해 이사회에 상정했다.

공로자회 이사회가 지난달 25일 정 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대상 상신의뢰서를 상법위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사회는 정 회장이 지난 2월 19일 이사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특전사동지회와 화해행사를 열었으며,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정윤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8월 29일자 광주일보 7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난달 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바지사장이었다'고 밝히면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

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법위 결정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달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지난 27일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해 개최 불가하다는 공고문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공고문에는 이사회 안건 중 징계 건은 정관상 회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법위 개최 또한 중앙회 회장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담겼다.

정 회장은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회장의 허가 없이 열린 상법위와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개최하려 하는 임시이사회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이사회도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부상자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통과시키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임신·출산·부인과 진료...수어 통역·이동지원 서비스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장애인 임신부를 위한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7일 장애인 임신부의 임신부도 출산, 부인과 진료까지 담당할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열었다.

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예약·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한다.

임신과 분만, 신생아 관리 등 연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휴무 없이 여성장애인의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를 시행한다. 부인과 검진과

초음파 검사, 갱년기·노년기 치료도 병행한다.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동행, 교육, 연계, 진료보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조문경 산부인과장은 "여성장애인들은 지금까지 편의 시설이나 장비 등이 뒷받침 되지 않아 진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번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을 통해 장애 여성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됐으며,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6곳에서 운영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응급처치 내가 1등

29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 골절처치 등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원하는 과목 온라인 수업...광주 '빛고을온학교' 개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제공하는 '빛고을온학교'가 개교했다.

지난 9월 광주시 남구 옛 광주과학고 기숙사를 개축해 문을 연 빛고을온학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다.

빛고을온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희망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재학중인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교육으로 과목을 이

수할 수 있다.

과목 개설 및 운영, 평가·기록 등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현재 공동교육과정 기준을 따른다. 지필평가는 등교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또는 대면으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해 평가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빛고을온학교가 다양한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마약사범 10명 중 4명 '1020'

20대 37%...서울 이어 두 번째

광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8월) 광주경찰청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은 총 1595명에 달했다.

이 중 20대 마약사범이 598명으로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 중 37.4%에 달했고, 10대 마약사범도 31명으로 1.9%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125명이 검거됐다. 경제력이 있는 30~50대가 52.7%를 기록했

다. 전체 마약사범 중 공무원도 3명이 포함됐다. 이 중 44%(707명)의 마약사범이 재범 이상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20대 마약사범의 경우 서울이 39%를 차지해 전국 17개 광역자치체에서 20대 마약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가 두번째(37%)였다.

용 의원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사범이 20을 웃돌 정도로 마약 문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범과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범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